



# 한 눈에 읽는

## 주요 환경뉴스

각 분야별 주요 환경뉴스를 한눈에 보다 쉽게 전하는 미디어 섹션 페이지

### NEWS ▶ ▶ ▶

#### 환경영향평가, 인터넷시대 개막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http://eiass.go.kr>)』을 구축하여 금년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진행중인 평가서의 검토담당자 및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 화학물질에 대한 전방위 단속 실시

환경부는 5월부터 무등록 유독물영업, 유독물 수입 미신고,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09년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환경부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휘발유 품질기준을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게 황함유량을 10ppm 이하로, 벤젠함량을 0.7%이하로, 경유의 품질 기준은 유럽의 무황(Sulphur-free)수준으로 개선한다.

#### 환경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중소기업 지원 나서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노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하여 저NOx버너를 설치한 인천지역 K 중소기업체에 설치비용의 65%(27백만원)를 최초로 무상 지원하는 등 저NOx버너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협 회 소 식

#### 한강유역환경청 · 환경보전협회 2006년도 5기 에코아카데미 운영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과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2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환경에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을 병행한 에코아카데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어 제5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주간(주 1회, 매주 수요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연생태학습, 한강수질측정, 유기농가현장체험 등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어 참가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육수료생들에게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이 발급되며 다양한 환경보전 행사프로그램에 우선 참여 혜택이 부여되며 지역사회의 환경지킴이로 활동을 하게 된다. 제6기 교육은 내년 4월중 실시될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hg.me.go.kr>, <http://www.epa.or.kr>)를 참고하시거나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031-7902-463)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보전협회,  
자원순환홍보전시관 참여,**



환경보전협회는 지난 3월 24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개관한 자원순환홍보전시관(서울 지하철5호선 답십리역)에 참여하여 환경부와 함께 공모한 우수환경도서를 시민들에게 연중 전시·홍보하고 있다. 자원순환홍보전시관에는 플라스틱, PET병,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품과 음식물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의 감량화에 대한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학생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져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환경보전협회 · 삼양사 · 휴비스 대규모 환경이벤트 개최

- 전주지역 초·중학생 1만7천명 참가
- 『제9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개최



환경보전협회(회장 : 손경식)는 삼양사(대표이사 : 김 윤 金 銳 회장), 휴비스(대표 : 조민호 趙民鎬 사장), 삼양화성(대표 : 박호진 朴浩鎭)과 공동으로 지난 4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휴비스 전주공장에서 『제9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 그림 축제』를 개

최했다. 자연사랑, 환경보전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행사에는 올해 김낙빈 전주시방환경관리청장, 장규신 환경보전협회 기획관리본부장, 김수연 전북교육청 장학사, 양교수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장 등 전주지역 인사를 포함해 전주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 교사 등 모두 1만 7천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는 기업이 주도하는 순수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고지 밀착형 환경이벤트」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기업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장관상, 환경보전협회장상 등을 비롯, 총 1,041명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입상자 발표는 5월 3일(수) 전북일보와 삼양사([www.samyang.com](http://www.samyang.com)), 휴비스([www.huvis.com](http://www.huvis.com)), 삼양화성([www.samyangkasei.com](http://www.samyangkasei.com))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또한 시상식은 5월 11일(목) 오후 3시 휴비스 전주공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개정 환경법 해설 세미나 개최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연수부 교육장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법 해설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회원사 환경관련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대하여 환경부 담당관이 상세한 설

명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저감기술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실무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 서울본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 1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저감기술,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및 선진 신기술을 소개하여 현장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교육은 한국환경기술단 박성복 대표이사, 일영엔지니어링 최문규 대표이사가 「소각설비 개요 및 설계기술», 「다이옥신 저감 방지시설 운영기술», 「전기집진기 운영기술 및 설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한 교육을 하였으며 환경부 산업폐수와 담당자가 개정된 수질환경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호환경컨설팅 이문호 대표이사가 「하폐수처리장 운전시 활성슬러지이상현상의 종류와 진단», 「활성슬러지 진단방법», 「활성슬러지 진단의 실험」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 국내·외 우수사례 및 현장 적용사례 연구 및 토의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개정 환경법 해설 세미나 개최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이희태)에서는 지난 3월 22일 경산 시민회관 대강당 에서 경상북도지사,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하여 도민, 공무원, 학생, 환경단체, 시민 단체, 기업체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물과 문화"라는 주제로 물사랑 환경사진전과 수도물 시음 및 상하수도기 전시가 기념식 행사와 함께 개최되어 시·도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환경의식을 일깨우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4월 21일과 26일 양일간 대구·경북지역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관 대강당과 대구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2006년도 환경관련 개정법규 해설교육을 개최 하였다.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관계관(수질보전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금번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법규 해설과 2006년도 수질정책 · 지도점검방향 및 수질관련법령 전부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해설교육에는 관내 회원업체와 배출업체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600여명이 참석 하는 등 많은 관심속에 진행되었으며 각종 행정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보전법 관련 6개법규 및 주요 훈령, 예규 내용으로 제작된 법규집 및 해설자료를 배포하였다.

###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 환경 특별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경기도지회(지회장 우

봉제)에서는 교육사업과 기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대상으로 환경관련 특별교육을 경기도 남부(수원농민회관)와 북부(경기도제2청, 반월·시화공단지역(한국서부공단관리소))로 나누어 4월중에 실시하였다.

본 교육에는 『수도권 대기총량제 해설 및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해설과 유형별 지도·점검 사례 해설, 악취 이론 및 실무』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의 내실있고 실무적인 강의로 370여명이 참석하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육교재와 법규집(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통합본) 및 운영일지(대기, 수질)를 배포하였다.



## 국 내 소 식

### 환경영향평가, 인터넷시대 개막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http://eiass.go.kr>)」을 구축하여 금년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는 '98년 이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가 공개에 동의한 494개 사업의 평가서 원문(본문 및 협의의견 포함), 환경평가서에 포함된 사업개요, 환경현황 및 환경질 측정

자료 등 22개 항목의 추출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관련 규정, 연구보고서 등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에 필요로 하는 유용한 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평가서의 검토담당자 및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금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계속 추진하고, 평가협의 이후 일정기간 동안 환경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서인 환경영향조사서(1,400건)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평가서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여 일반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서 작성기간의 단축과 협의·검토의 진행상황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 환경보전협회 진행으로 “수변토지 500만평 매수기념” 행사 개최



『수변토지 500만평 매수기념 행사』가 지난 3월 22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환경생태공원에서 환경부차관,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한강수계 관련 공무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환경부는 4대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광역상수원 상류 수변구역 등 하천인접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사업을 2000

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531만평을 매수하여 양수리환경생태공원 등 자연생태 복원과 녹지를 조성하였다.

수변구역 토지 매수사업은 공장, 축사, 음식점, 모텔 등 오염 유발시설 및 개발토지 등을 매입하여 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같은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전예방적인 사업으로 오염억제 효과가 상당히 크다. 환경부는 수변구역 토지매수를 더욱 확대하고, 매수한 토지중 친환경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토지의 수질개선기능을 강화하여 수생태의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수체와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를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09년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환경부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기준 개선,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회수장비 설치근거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기로 하였다.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휘발유 품질기준을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게 황함유량을 50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 벤젠함량을 1.0% 이하에서 0.7%이하로 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한다. 경유의 품질기준은 황함유량을 30ppm 이하에서 10ppm이하로, 방향족화합물과 세탄지수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개선하며, 정유업체의 사전 준비 등을 감안하여 '09.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소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회

수장비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합건수가 50건 이상 및 판매대수 대비 4% 이상 발생시 자동차제작사의 리콜(결함시정) 요건을 설정하였다. 향후 입법예고(4.26~5.16)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2.30일 시행될 예정이다.

### 화학물질에 대한 전방위 단속 실시

위 반 행 위	벌 칙
유해성심사 미이행 신규화학물질 수입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유독물 수입 미등록	상 동
유독물 수입 미신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 배출량 허위자료 제출	200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확인 미이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환경부는 5월부터 무등록 유독물영업, 유독물 수입 미신고,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화학물질 분야에 대한 관리기능 확대를 위해 금년 2월 발족된 7개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단이 중심이 되고,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관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등록을 받지 않고 유독물(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등 555종) 제조·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 무등록 유독물영업자가 전국적으로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년 5~6월과 9~10월에 각각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

까지 시·도의 유독물관리가 기존 등록업체의 취급시설 및 관리기준 등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지도감동에 주로 머물러 있어, 영업등록 자체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 환경부의 진단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다소 느슨했던 화학물질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앞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환경청의 화학물질 관리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오염총량관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실태 연속·자동 감시체계 구축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유량 및 COD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허용부하량 초과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 할당사업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이번 사업에서 강동(부산)·지산(대구)·의성(경북 의성군)·금성(경북 의성군)·상주(경북 상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 사업장이 연결되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도정보를 통해 유량 및 COD 측정기기의 운영상태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 측정자료의 최저·최고·평균 등을 계산하여 BOD 배출부하량을 자동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동 시스템의 시범구축 및 운영에서 얻은 know-how를 1~3종 배출업소와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2,443개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축 중인 폐수 TMS 시스템에 적용하고, 향후 시스템을 통합하여 오염부하량 감

시와 오염사고예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시스템이 완료되면 오염물질 무단배출, 수질오염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방재, 취수중단 등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기로 하였다. 동 규칙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 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기환경기준, 2007년부터 강화

국립환경과학원(원장 : 윤성규)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대기환경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04년 ~ '05년까지 “대기환경기준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1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대기오염물질(SO<sub>2</sub>, CO, NO<sub>2</sub>, O<sub>3</sub>, PM<sub>10</sub>, Pb) 환경기준 수준의 적정성 여부와 벤젠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신규 환경기준의 설정 필요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준 비교분석과 함께 환경기준의 달성정도, 역학자료, 위해성 및 저감방안과 비용-편익 분석을 거쳐 환경기준 강화(안) 및 신규 설정(안)을 제시하였다. 환경대기중 농도수준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학자료를 감안할 때 영향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해 PM<sub>10</sub>, NO<sub>2</sub>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초과발암위해도가 다른 유해대기오염물질보다 높은 벤젠은 선진국(일본, 영국, EU) 사례와 같이 인체 유해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의 신규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대기환경기준 개선(안)

구분	시간	현재	기준(안)	적용시기
PM10 (µg/m³)	24시간	150	100	'07년
	년	70	50	'07년
PM2.5(µg/m³)	24시간	미설정	-	'10년까지(안제시)
	년	미설정	-	'10년까지(안제시)
NO2 (ppm)	1시간	0.15	0.10	'07년
	24시간	0.08	0.06	'07년
	년간	0.05	0.03	'07년
벤젠(µg/m³)	년	미설정	5	'10년

### 자동차·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심각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 등으로 자동차·전자제품의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년전과 비교하여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이 68%, 폐자동차 발생량이 11% 증가하였다. 폐차 및 폐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포함한 폐차 잔재물(ASR),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 원인인 냉매물질과 각종 유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적정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은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함유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비용, 폐차 냉매물질의 미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재활용가능한 물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할 경우 연간 약 3,760억원에 이른다. 또한 향후 수입개방 확대로 저가의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 급격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을 사전에 규제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7월 시행 계획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법률은 EU 등 선진국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대한상의, 민·관합동 개성공단 시찰단 파견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3월 30일 '산업계 민관합동 개성공단 시찰단'을 파견, '개성공단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북한측에서도 김춘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부위원장,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총국장 등 장관급인사 2명이 동시에 참석해 금번 개성공단 시찰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남북한 양측에 서로 이익이 되는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성공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의 관심과 열기가 실제 투자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기업인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준석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축사에서 "입주기업들이 애로를 청취, 점검할 수 있는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 밝혔다. 투자설명회에 이어 시찰단은 현재 시범단지에서 가동중인 '신원' (의류제조), '태성산업' (화학품용기), '삼덕통상' (신발제조)을 시찰하고, 공단내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시찰단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정준석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나도성 무역유통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그리고 실제 개성공단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인 등 총 200여명이 참가했다.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올 상반기 중 본단지 1단계 분양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2000만평에 걸쳐 2000여개의 기업이 들어설 개성공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 국회 재경위 의원 초청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26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덕구 국회 재경위 의원을 초청하여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5대 현안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덕구 의원은 "우리경제는 완벽한 시장체제로 가지 못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이라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과제는 '정치, 정책 프로세스와 도덕적 헤이', '재벌 경영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동산 정책의 약속환 구조', '3대 취약부문의 연락처', '사회안전망 체제와 재원조달'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정 의원은 "시장은 끊임없이 차별화하려는데 정치는 균등화하려 한다. 정치논리가 경제를 지배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는 정책 평가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국회와 정당의 정책 입안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그는 "정부가 '시장의 힘'을 경시하고 가격 억제책만 고집하다 보니 실효를 못 거둔다. 보우세는 강화하되 양도세, 거래세는 내려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200여명이 참석했다.